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한·중·일 합작 드라마

한채영·오지호 캐스팅

배우 한채영과 오지호가 한·중·일 합작드라마 '스트레인저스 6'에 캐스팅됐다. '스트레인저스 6'의 한국측 제작사인 W 미디어 콘텐츠는 한채영과 오지호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한채영은 국가정보원 요원 안지혜를, 오지호는 같은 국정원 요원인 열혈청년 박대현을 연기한다.

'스트레인저스 6'는 한·중·일 3국 공동제작을 조성해 배경으로 3국에서 선발된 6명의 남녀 요원들이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가을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마이 프린세스' 송승헌

사랑 주는 남자

송승헌(35)을 만났다. 꽃미남의 대명사이자 아시아를 주름잡는 한류스타이고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에서 재벌 상속자이자 엘리트 의과관 박해영을 연기하며 로맨틱 가이로 등극한, 말 그대로 '핫 피플(HOT PEOPLE)'인 그다.

"마지막회 방송일인 24일 오후 6시까지 촬영하고 곧바로 종파티에 갔다. 술은 별로 안 마셨는데 완전히 '기절'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7시에 눈이 떠지더라. 두 달간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더 잠이 안오더라. 종파티에 가느라 정작 마지막회를 못 봐 일어나서 췌겨왔다."

송승헌은 의외로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하지 않았다. 지금 그가 '마이 프린세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드라마 '에덴의 동쪽', 영화 '무적자' 등 최근 계속 무거운 작품을 했고 인젠가부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을 하던, 데뷔 때의 '뽕뽕송승헌'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던 차에 이 작품이 들어왔다. 1~4회 대본이 미리 나와 있었는데 그건 정말 재미있었다. 왜 진작 안 했냐고? 어려서는 멋져 보이고 싶었다. 그때 해피엔딩보다는 뭔가 여운이 남는 작품을 선호했다."

이번 '마이 프린세스'를 통해 그는 '제 옷을 입었다'는 평을 받았고, 낯설 돌는 러브신을 이번처럼 많이 한 적이 없었다. "그냥 실제로 연애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편하게 찍었다. 박해영이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 다만 난 연애할 때 박해영보다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박해영의 소극적인 애정표현에는 답답해지더라. 박해영은 탈세의혹 등으로 이설과의 결혼을 망설였지만 진짜 사랑하면 그런 게 어딤나. 나 같으면 이설에게 '그냥 우리 도망가자'고 했을 것이다."

그는 나이 들면서 가장 달라진 게 연기에 대한 자

**"로맨틱 코미디 처음 연기
묵직한 캐릭터 피하려 선택
'제 옷 입었다' 호평 흐뭇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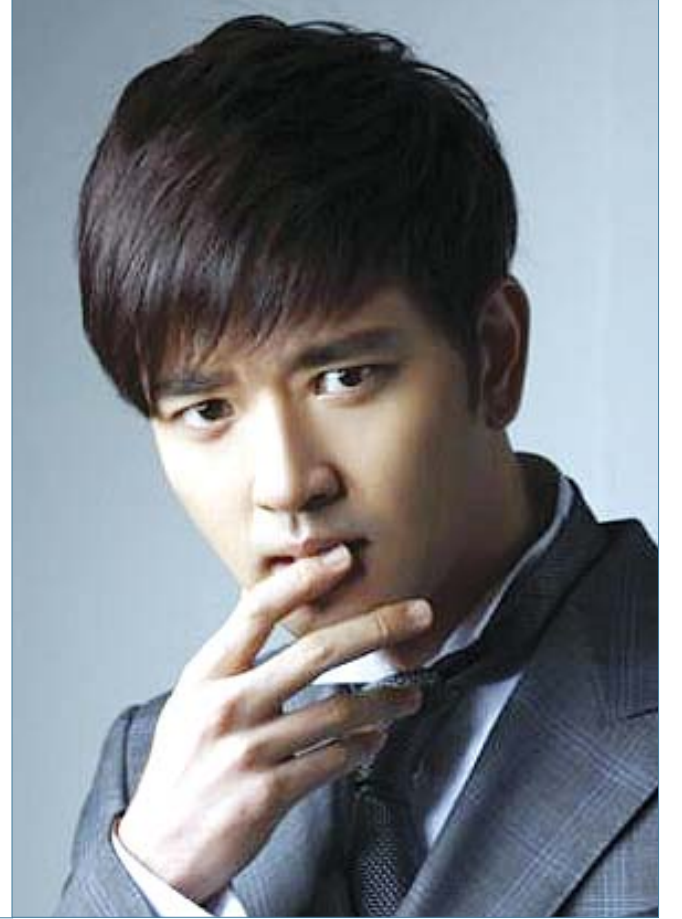
세라고 말했다. "제대하면서부터 연기에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고, 몰랐던 재미도 새록새록 찾아가고 있다. 예전엔 대본을 받으면 기계적으로 연기했다면 요즘엔 지문 외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등 다른 데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가 연기에 욕심이 없었던 건 "자라면서 연기를 꿈꿔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우 할 사람은 따로 정해진 줄 알았고 그건 별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1995년 내가 아르바이트하던 곳에 의류 브랜드 스톱의 직원이 와서 모델을 뽑는데 지원해보라고 해서 지원했다. 덜컥 메인 모델이 됐다. 당시 듀스의 김성재씨가 메인였고 나랑 소지섭씨가 서브였는데 김성재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리가 얼굴에 메인 모델이 된 거였다. 그후 곧이어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하게 됐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러니 욕심 운운할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연기 못 한다고 욕도 엄청 먹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연기는 가장 잘할 수 있고 10년 이상 투자한 일이며 내 평생을 걸 직업이다."

그는 인터뷰 말미 "모든 일은 인간관계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신경 안 썼지만 이젠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배우들의 이야기 "변신"



배수빈 '49일'

눈물 빼는 남자

**"출세에 목숨 거는 야망가
한 이미지 간혀 있으면 답답
착하다 악해지니 재밌네요"**

'착한 남자' 배수빈(35)이 이번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나쁜 남자로 변신한다. 배수빈은 '싸인' 후속으로 16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새 수목극 '49일'에서 야망가 사모잡힌 엘리트 강민호 역을 맡았다.

'개천에서 난 용'인 강민호는 출세를 위해 부자 집 딸 지연(남규리 분)과 정략결혼을 꾀하지만 결혼식 전날 지연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다른 수단을 동원해 야망을 실현하려고 발버둥친다.

"자기 마음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쁜 놈입니다.(웃음) 착한 이미지가 좋긴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이미지로 굳어지는 건 배우에게 좋지 않은 일이지 않아요. 악역이 들어왔다고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착한 남자를 하다가 나쁜 남자를 하니 재밌네요."

'49일'은 화제의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소현경 작가가 집필한다. '찬란한 유산'에서 '키다리 아저씨' 준세로 사랑받은 배수빈에게 소 작가는 왜 180도 다른 역할을 제안했을까.

"배우들은 누구나 여러 삶을 살고 싶어해요. 어느 순간 틀에 갇혀 있다고 느끼면 답답해지죠. 그런 점에서 소 작가님이 제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 이번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악역이기도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40대 시청자를 책임져야 해요. 저 빼고 다른 주연배우들은 다 어리거든요.(웃음)"

'49일'은 판타지 멜로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연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영혼이 이경(이요원)이라는 여인에게 빙의되기 때문이다.

"'시크릿 가든'에서는 모두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49일'에서는 제가 악역이라, 같은 판타지라도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민호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고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며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찬란한 유산'의 영광 이후 배수빈은 SBS '천사의 유혹'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복수의 화신을 연기하며 또다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002년 중국 CCTV 드라마를 통해 중국에서 먼저 데뷔한 후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수빈은 "오랜 기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쉬어야겠지만 지금은 연기하는 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해 7권을 할 때는 한푼이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일이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요. 다 행히 당시 7권의 캐릭터가 다 달라서 저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연기를 제대로 못하면 진이 빠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변에서 '넌 아직 보여줄 게 많아'라고 하는데 일부러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늘 채워가며 나 자신을 속성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역할과 좋은 연기가 만나지 않을까요."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SINCE 1982
www.kjhr.com

- * 매우 잘 들립니다.
- * 안보입니다.
-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p>본점</p> <p>대성학원 장동로터미널 아시아우회연당 신축부지 도청역 2번출구</p> <p>☎062)227-9940/225-9940</p>	<p>충장점</p> <p>☎062)227-9970</p>	<p>순천점</p> <p>☎061)752-9940</p>	<p>목포점</p> <p>☎061)262-9200</p>
---	--	--	--